

선사시대(prehistory)는 역사시대(history)와 대칭되는 말로 문헌 기록이 없는 시대를 말한다. 우리나라 고고학에서의 시대 구분에 따르면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초기철기시대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반면, 역사학에서는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성립하는 청동기시대부터는 역사시대로 구분하기도 한다.³⁵

제1절 구석기시대

지구상에 인류가 처음으로 출현한 것은 지금부터 약 700만 년 전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인류가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도구를 사용한 시기는 약 260만 년 전부터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구석기시대는 약 260만 년 전부터 신석기시대가 시작되는 약 1만 년까지 시기를 지칭하며, 지질학적으로는 제4기[第四紀, Quaternary] 간신세에 해당한다.³⁶

초기의 구석기인들은 주로 따뜻한 지방에 살았으나 불의 발견으로 자연을 극복할 경쟁력이 생긴 후 활동 범위를 추운 지방으로까지 확장하였다. 이들은 작은 무리를 지어 동굴이나 바위그늘, 야외에 간단한 막집을 짓고 살며 계절에 따라 이동생활을 하였으며 식량은 사냥이나 채집 등을 통하여 조달하였다.

수백 만년의 긴 시간 동안 진화과정을 거치며 두뇌 용량이 증가하고 지능이 발달하게 되면서 간단한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졌다. 원시적인 종교의 발생과 예술 행위도 일어나 시체를 매장하고 동굴에는 벽화를 남겼으며 사실적인 조각품 등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사냥을 위하여 처음에는 자연석기나 조잡한 석재도구, 나무나 뿔, 뼈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였으나 점차 제작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용도의 정교한 석기를 제작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구석기시대는 약 100~70만 년을 전후하여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구석기인들의 흔적은 주요 하천과 해안선을 따라 한반도 전역에서 1,000여 곳의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 주요유물로는 주먹도끼, 찍개, 여러면석기, 찌르개, 뚜르개, 새기개, 밀개, 굵개, 슴베찌르개, 좀돌날몸돌, 훙날, 망치 등이 있다.

경북·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으로는 상주 신상리, 안동 마애리, 김천 은기리, 성주 관화리 등이 있다. 아직 전기구석기유적이 발견된 적은 없으며, 모두 중기와 후기구석기시대의 유적이다.

35.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조선에서는 이미 문자 기록이 있었으므로, 고조선이 건국한 청동기시대를 역사시대로 넣어야 하지만, 보통 고고학계에서는 초기철기시대까지를 선사로 본다(국사편찬위원회·국정도서편찬위원회, 2010,『고등학교 국사』, 5쪽).

36. 배기동, 2013,『구석기시대』『韓國考古學專門事典』舊石器時代篇, 國立文化財研究所, 39~40쪽

울진 지역에서는 아직 발굴 조사된 유적은 없지만, 북면 주인리 석수동³⁷에서 유물이 채집되어 보고되었다. 이 유적은 기원전 12만 년~기원전 4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편년되어 늦어도 이 시점에는 울진 지역에 구석기인들이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2절 신석기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한반도에도 새로운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들은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서 움집을 짓거나, 동굴, 바위그늘에서 살며 소규모 마을을 이루어 정착 생활을 하였다. 살림살이는 수렵과 어로, 채집활동 외에도 원시적인 농경과 가축사육이 시작되었다. 한반도 내 지역 간의 활발한 교류와 더불어 멀리 중국 동북 지역, 러시아 연해주, 일본 열도 등과도 교류하였다.

정착 생활의 보편화로 마을이 형성되면서 큰 규모의 움집이 등장하고, 내부에는 다양한 저장시설과 음식의 조리와 난방을 위한 노지가 설치되었다. 또한 토기와 마제석기(磨製石器)가 사용되며 그물과 직물을 짜는 등의 도구발달이 현저했는데, 이 과정에서 원시적인 분업형태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행위도 발전하여 죽은 사람을 묻는 매장풍습과 자연승배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신석기인들의 흔적은 주거지, 동굴, 바위그늘, 무덤, 조개더미, 토기가마터 등의 형태로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신석기시대의 시작을 알리며 처음으로 등장하는 유물은 다양한 문양을 새긴 빗살무늬토기[櫛文土器]로 야외가마에서 구워졌으며, 곡식의 저장과 음식의 조리, 옹관 등으로 사용되었다. 수렵과 어로를 비롯해 벌목, 농경, 가공에는 석재도구가 많이 이용되었는데, 석창·석촉·작살·석부·보습·갈판·갈돌 등 다양하며 일부분을 같아 만든 것이 많다. 그 외에 결합식낚시·송곳·바늘 등의 골각기와 토제인형·조개팔찌·귀고리·목걸이 등의 장신구가 있다.

우리나라 신석기 문화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제주도의 고산리식 토기를 약 1만년(BC 8,000) 전으로 보고 있어 이 시점을 시작으로 보고 있다. 이 토기는 고산리·삼양동·제주 삼화지구·강정동유적 등 모두 제주도에 국한되며 내륙에서는 아직 발견된 바 없다.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빗살무늬토기는 독특한 토기 형태와 문양을 기준으로 전기 후반부터 서북 지역, 동북 지역, 중서부 지역, 남부 지역, 동해안 지역 등 5개 문화권으로 구분되며, 제주도의 경우, 한반도 내륙 지역과 시간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많아 별도로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시

37. 홍영호·김상태, 2012, 「경북 동해안 지역의 새로운 구석기 유적」『한국구석기학보』3, 한국구석기학회